

벤젠, 끝없이 추락 600달러 위험

FOB Korea 635-650달러로 29달러 하락 ... 미국은 4달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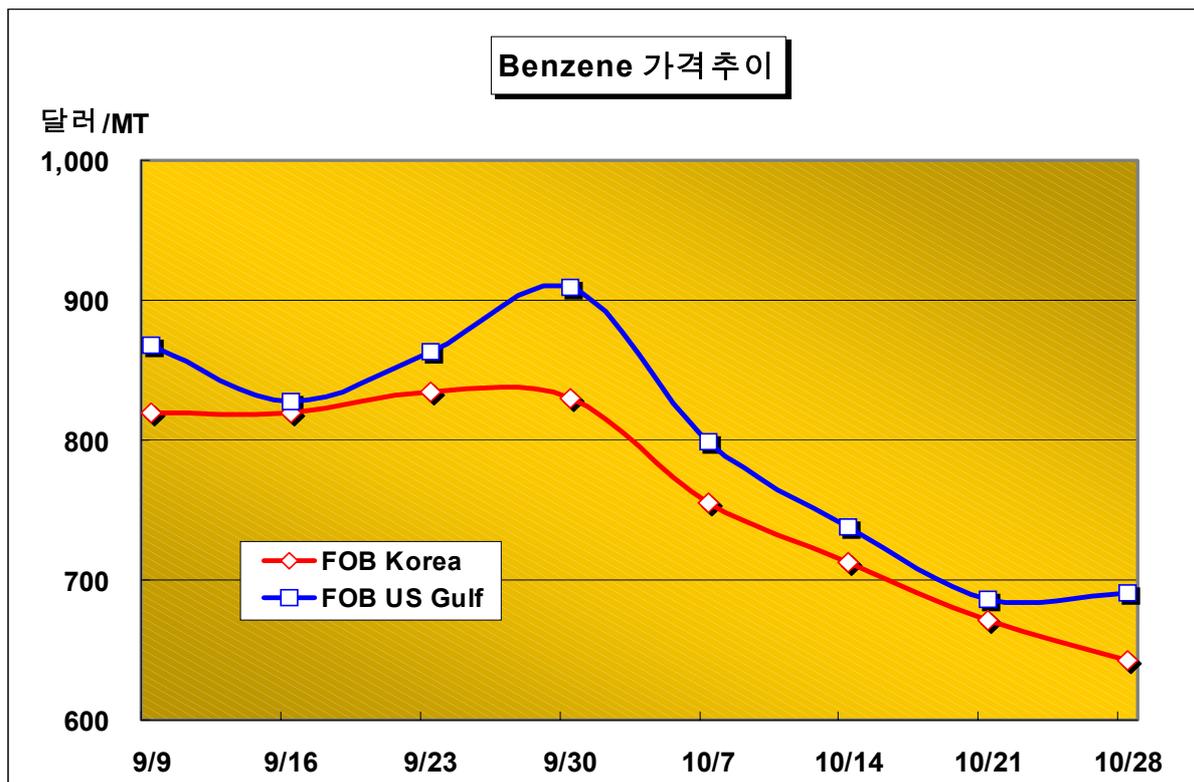
벤젠(Benzene) 가격은 10월28일 FOB Korea 톤당 635-650달러로 29달러 하락했다.

아시아 벤젠 시장은 국제유가 안정세와 미국시장의 벤젠가격 약세 및 거래부진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제유가는 10월26일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가격이 전일대비 배럴당 1.78달러 하락한 60.66달러, 두바이(Dubai)유가 전일대비 배럴당 1.95달러 상승한 54.31달러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공급기업들이 Cargo 출하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에서는 12월말 수요처의 벤젠 재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 초에는 재고확보를 위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Nippon Petrochemical은 11월 아시아 계약가격(CP)을 10월보다 175달러 인하된 CFR Asia 톤당 665달러로 고시했다.



한편, 미국의 벤젠 가격은 10월28일 FOB US Gulf 갤런당 229.00-232.00센트로 톤당 691달러를 형성해 4달러 상승했다.

미국시장은 허리케인 이후 SM(Styrene Monomer) 및 Cyclohexane 등 주요 다운스트림 부문의 가동률 감축에 따른 수요감소가 지속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0월 벤젠 계약가격은 갤런당 310센트를 기록했으며 11월 계약가격은 한 메이커가 270센트를 고시했고 다른 메이커들이 갤런당 230-240센트를 거론했지만 결국 주말까지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 기자>

<화학저널 2005/10/31>